

1940년대 국가의 여성 동원과 불온의 정치학

최지현*

차례

1. 서론 : ‘몸’을 쓰는 여성들
2. 전쟁과 여성의 노동
3. 착취 주체의 문제
4. 해방기, 불온한 여성
5. 결론 : 불온한 ‘비국민’과 남겨진 문제

〈국문초록〉

1940년대 ‘몸’을 쓰며 살아왔던 여성들은 당대 지배 담론에 의해 ‘국민’의 경계 안에 놓이기도 하고, 밖으로 배제되기도 한다. 가령 도심의 유곽에서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은 술과 유흥에 젖은 ‘비국민’으로, ‘군/기업 위안부’로 동원되어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은 총력전시 모범적인 ‘국민’으로 구분 지어진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들 여성의 경계는 지워지고, 일본에 의해 성노예적 생활을 하다 풀려난 불쌍한 여성들로 불리며, 이들에 대한 보호 갱생 운동이 추진된다. 이 글은 1940년대 초반의 전시체제와 해방 이후 신생 국가 건설기에 ‘성노예적’ 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명명하는지, 그 ‘국민’의 경계를 구획짓는 방식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주되는 ‘불온’의 정치성에 대해 논의했다. 덧붙여 1940년대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주체에 주목함으로써 ‘민족 수난’의

*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 수료

피해라는 수사에 지워진 ‘성(性)’의 문제를 밝혔다.

핵심어 : 여성, 몸, 노동, 법, 제도, 전쟁, 성적인 통제, 민족, 기억

1. 서론 : ‘몸’을 쓰는 여성들

전쟁기 여성은 ‘모성’, ‘보조적 노동력’, ‘전쟁을 응원하는 치어리더’ 등의 이미지로 전시 정책에 활용되어 자녀나 병든 병사를 돌보는 여성, 머릿수건을 두른 채 노동하는 여성 등으로 이미지화되었다.¹⁾ 특히 전시 여성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몸’이거나, 전장으로 빠져나간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워 넣을 노동력으로서의 땀 흘리는 ‘몸’, 그리고 병사들의 전투의욕 증진을 위해 현장에 파견되는 ‘몸’이어야 했다. 즉 노동력으로서의 여성의 몸이 다뤄졌다.

그러나 1945년 전쟁이 끝난 직후, 해방을 맞은 한국에서 신생 국가 건설이라는 대업 하에 ‘몸’을 쓰며 노동한 여성들의 존재는 지워졌다. 해방 직후 해외 각지로 흩어졌던 여성들의 귀환은 다수의 전재민에 묻혀 숫자로만 등장할 뿐이었다. 그러던 것이 1946년 5월 17일 법령 제 70호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 계약의 금지>가 공포²⁾된 이후, 인신매매 금지령은 곧 공창제 폐지로 이해되어 ‘우리의 봉건적 악습과 일제의 유산인 공창제가 완전히 폐지되’었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³⁾ 그리고

-
- 1) 전쟁 시스템이 만들어낸 여성의 역할·이미지에 대해서는 와카쿠와 미도리, 손지연 옮김, 『전쟁이 만들어낸 여성상-제2차 세계대전 하의 일본 여성동원을 위한 시각 선전』, 소명출판, 2011 참조.
 - 2) 1946년 3월 6일 좌익여성운동단체인 조선부녀총동맹은 하지중장에게 ‘공사창제폐지 결의문’을 제출한 이후, 1946년 6월 17일 법령 제70호 ‘부녀자의 매매 혹은 그 매매 계약의 금지’가 공포된다.
 - 3) 『사설』, 『동아일보』, 1946.05.27.

그러나 미군정당국은 ‘인신매매’만 금지했을 뿐, 개인의 의사에 의한 매춘은 인정하려 하였고, 보건후생부에서도 “인신매매 폐지가 공창의 폐지는 아니며, 사창의

조선·만주·일본 각지의 유곽 및 조선요리점에서 기업위안부의 형태로 성노예적 생활을 했던 여성들은 ‘여성 해방’의 문제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좌우익 여성단체가 연합하여 ‘폐업공창구제연맹’⁴⁾을 결성하여 공창제 폐지와 매춘여성의 권리문제를 고민했으나, 해방 직후 전재민의 신분으로 고국에 돌아온 이들 여성들은 생계를 위해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이들이 “창기로 전락하여 공창은 점차 더 늘어나”고, “미군의 진주로 인해 미군만을 상대로 하는 창기가 생겨” 매춘문제는 보다 심각해졌다.⁵⁾ 또한 귀환 이후 매춘을 선택하지 않은 여성들도 과거 ‘군위안부’의 경험을 숨긴 채 살 수밖에 없었다.

총력전 당시 여성 문인들은 전시에 맞는 생활개조를 이야기하며 유한부인과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여성들을 ‘사회적 불안과 동요를 조장하는 대상’으로 구별짓고 ‘국민’에서 배제시켰다. 그러나 해방 직후 여성 문인들은 좌·우익을 막론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과거에 성노예 생활을 했던 여성들을 불러낸다. 즉 여성의 지위향상·권리확대·직업적 진출을 호소하면서 공창제 폐지를 핵심 사안으로 거론하며, 이들 여성을 민족적 피해자로 규정하여 이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포섭한 것이다.

1940년대 ‘몸’을 쓰며 살아왔던 여성들은 당대 지배 담론에 의해 ‘국민’의 경계 안에 놓이기도 하고, 밖으로 배제되기도 한다. 가령 도심의 유곽에서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은 술과 유흥에 젖은 ‘비국민’으로, ‘군/기업 위안부’로 동원되어 성착취를 당한 여성들은 총력전시 모범적인 ‘국민’으로

격중과 성병의 만연을 방지하는 방편으로 공창의 존속은 불가피하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다. (『조선인민보』, 1936.07.26.) 공창제 폐지 운동의 전개에 관해서는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역사연구』 제9호, 2001.06.) 참조.

4) 조선부녀총동맹, 여자국민당, 독립촉성애국부인회, 애국부인동맹, 불교부인회, 천도교부인회, YMCA, 여자국민회, 한민당부인회, 여자청년당, 천주교여자청년회, 성병예방협회 등 좌우익 여성 단체가 참가하여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하였다. 중앙집행위원으로는 독립노동당 부인회장 김말봉이 선출되었다. 『조선일보』, 1946.08.10.

5) 양동숙, 위의 글, 219쪽.

구분 지어진다. 그러나 해방 이후, 이들 여성의 경계는 지워지고, 일본 제국에 의해 성노예적 생활을 하다 풀려난 불쌍한 여성들로 불리며, 이들에 대한 보호 갱생 운동이 추진된다. 이들을 어떻게 명명하느냐는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드러내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글은 1940년대 초반의 전시체제와 해방 이후 신생 국가 건설기에 성노예적 생활을 하게 된 여성들을 어떻게 분류하고 명명하는지, 그 ‘국민’의 경계를 구획짓는 방식들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시대에 따라 변주되는 ‘불온’의 정치성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덧붙여 1940년대 여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한 주체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여성들의 동원 및 착취 주체에 주목하면, ‘민족 수난’의 피해라는 수사에 지워진 ‘성(性)’의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 전쟁과 여성의 노동

일찍이 1920년대 방직 공장을 필두로 성냥, 제화, 고무 제조 공업 분야의 공장이 생기면서 땀 흘리는 ‘몸’으로서의 여성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세계대공황 이후 더 많은 여성들이 집밖의 노동력으로 불려나오기 시작했다. 1930년대 준전시체제에서 군수, 광업, 중공업, 기계, 화학 등의 기술집약적 산업이 발전되면서 여성들의 공장 노동이 늘어나지만, 그 비중은 적었다. 공장 노동자는 문자해독 능력을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화점, 상점, 술집, 다방, 바 등의 새로운 도시 서비스 공간이 형성되면서 여성들은 엘리베이터 걸, 점원, 여급, 티켓 걸, 버스 걸, 접객부 등의 새로운 일자리에서 노동을 하게 된다.⁶⁾

또한 일본인의 집주지역으로부터 시작된 공창제가 조선 전영토에 공식적으로 인가된 이후 ‘강제적 산업화’로 농촌의 여성들에게 공장 노동이나

6) 정혜영, 『여성노동공간의 다양화와 식민화』,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316~323쪽 참조.

‘공동 경작’ 등의 부업이 강요되었다. 이에 조선 여성들은 낮은 임금, 하층 서비스직종 등의 형태로 사회·경제적 활동을 시작하게 되고, 이는 성관념의 비속화와 인신매매의 문제 및 매춘업의 확장으로 연결되었다.⁷⁾

1940년대 총력전 체제 하에서 여성들은 다양한 형태로 노동 현장에 투입되었다.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여성들의 노동 공간이 서비스 공간에서 공장 노동 공간으로 이동한 것이다. 전장으로 빠져나간 남성들의 빈자리를 채워 넣을 노동력이자, 돈을 벌어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노동력이 된 것이다.

흥미롭게도 1941년 3월 15일 총독부는 학도정신대를 조직(근로 동원 실시)하기에 앞선 1940년 9월에 ‘수양녀 제도’를 폐지한다. 이 제도의 시행의 의미는 ‘신생활체제’, ‘국민생활 신체제’, ‘전시생활 신체제 확립운동’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 “가난한 부모들로부터 노예처럼 남의 품에 팔려 그들 아래서 시들고 있는 가엾은 양녀들을 구원”해내자는 수양녀 제도 폐지 운동이 실행되자, “수양녀 80여명을 그날 즉시로 해방하여 그리운 부모의 품으로”⁸⁾ 돌려보냈다는 감동적인 기사가 신문을 장식하게 된다.

수양녀 해방운동으로서 가난으로 말미암아 동의 없이 상품처럼 팔았던 사랑하는 딸자식을 도로 데려오는 부모의 기쁨도 기쁨이려니와 명랑하고 순진해야 할 어린 품을 속절없이 어두운 그늘 속에서 썩히는 소녀들도 광명에 벅차 적은 가슴을 두근거리고 있는데 이것으로써 인신매매에 길든 노예적 습관은 완전히 우리 사회로부터 사라지게 된 것이다.⁹⁾

이처럼 수양녀 제도 폐지는 ‘재래 좋지 못한 관습과 폐풍으로 전래하여 오던 악 제도를 단연 타파한 것으로 획기적 처사’¹⁰⁾라고 선전되었다. 그

7)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제54집, 1998. 78~85쪽 참조.

8) 『修養女 80名, 一齊히 解放, 本町署도 準備 完』, 『매일신보』, 1940.09.04. 3면.

9) 『良心에 呼訴할 뿐, 修養女 解放에 따른 金錢關係, 警察은 不干涉 方針』, 『매일신보』, 1940.09.05. 3쪽.

런데, 소녀들을 ‘그리운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자’는 이 운동의 기저에는 가정으로 돌아간 소녀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이 숨겨져 있었다. 수양녀 제도가 폐지된 다음해부터 조선인 미혼 여성의 동원이 본격화되었다는 점은 우연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덧붙여 수양녀 제도의 폐지와 마찬가지로, 1942년경 ‘절약과 근로’를 내세우며 모범적인 총후부인의 자세로 적극 홍보되던 ‘식모 내보내기 운동’¹¹⁾ 역시, 식모로 나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여성들을 전쟁에 동원하려는 목적의 운동이다.

총력전시 국가의 통제 하에서 여성들은 크게 여자정신근로대, 종군 간호부, (군/기업)위안부로 나누어 징집·관리 되었다. 먼저 조선여자근로정신대는 ‘지원병의 누이’, ‘여자정신대’, ‘근로낭자군’ 등의 이름으로 모집되었다.¹²⁾ 여자정신근로대 동원은 ‘위안부’와 성격을 달리하는 여성노동정책이었다. 위안부의 다수가 ‘가난’이나 ‘가부장제 속의 교육차별’ 때문에 교육을 받지 못하거나 저학력 여성들이었다는 데에 반해, 정신대는 중학교 이상의 ‘학생’이나 졸업생들로 학교교육 시스템 안에 있는 이들이 그 대상이었다.¹³⁾ 여자근로정신대는 ‘지원’과 ‘응모’의 방식을 취하긴 했지만, 도별 할당인원을 맞추기 위해 학교 및 면사무소에서는 “‘황국신민’으로서의 강요, 진학이라는 교육기회와 돈을 벌 수 있다는 경제적 기회로 유혹, 가족을 협박, 사회관계망을 통한 압력 등”¹⁴⁾의 방식으로 모집되었다. 이

10) 『修養女 解産의 斷, 今日 鐘路 管内 一百 收養母의 呼出, 白紙로 解散을 命令』, 『매일신보』, 1940.09.08.

11) 가령 최정희의 소설 『장미(薔薇)의 집』(『대동아』 1942년 7월호.)의 주인공 여성은 “대동아[전]쟁이 이러나서 일억국민이 다 한덩어리가 되어 나라를 위해 새생활 계획과 방침을 세워야 할 때, 총후부인으로서의 정신무장이 필요하다며 망설임없이 식모를 내보내고, 식모방과 서재 겸 응접실을 폐지하면서 4-50원 하던 연료비가 10원으로 절약되었다고 한다.

12) “반도 여성들의 총궐기가 있어야” 한다며 “나의 뒤를 따르라는 듯 여성 진군의 봉화를 들고 일어난 근로낭자군”인 평양여자근로정신대가 여자 근로의 집단동원으로는 처음이다. 『매일신보』, 1944.04.19.

13)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뿌리와이파리, 2013, 44쪽.

14) 김미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동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3쪽.

들은 2년 기한으로 일본지역 군수공장 즉 항공기제작공장, 방직공장, 기계제작공장 등에 배치되었다.¹⁵⁾

다음으로, ‘군속’¹⁶⁾으로 전장에 불려간 여성들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피 흘려 병든 병사들을 돌보는 간호부와 몸이 성한 병사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위로해야 하는 위안부¹⁷⁾로 나뉜다. 여자 군속을 대표하는 종군 간호부는 ‘백의의 천사’, ‘총후의 꽃’, ‘여성다운 전사 공헌’으로 미화되어 모집·동원되었으며,¹⁸⁾ 이들의 임무는 육(海)군병원, 야전병원 등 전선을 오가며 환자들을 치료·간호하는 것이다.¹⁹⁾ 종군 간호부와 달리 군 위안부는 자신들이 군속 신분인지조차 모른 채 ‘노력 봉사’를 위해 동원되었다. 1938년 3월 육군성 부관 통첩에 의한 「군위안

15)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 편집, 『조선여자군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11쪽.

16) 군속이란 육해군에 복무하는 군인 이외의 사람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군속 신분은 문관 안에 보통 기술관, 법관, 감옥관, 통역관, 간호부, 사정관, 경부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속(屬), 촉탁원, 고원(雇員) 및 용인(수위, 간호부, 소사, 급사, 마부, 소방부 등)도 군속에 포함되어, 이들은 육해군의 요구에 따라 작전지에서 노동을 한다.”(百懶孝, 1990, 『事典 昭和戰前期の日本:制度と實態』, 吉川弘文館)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여자군속의 종군위안부와 비교 연구』, 동국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09, 328쪽에서 재인용.

군속은 일반적으로 1939년 9월~1942년 1월의 모집, 1942년 2월~1944년 8월 관알선, 1944년 9월~1945년 8월 징용 등 시기별로 나뉘어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다.

17) 군위안부로의 강제연행은 ‘황국위문조선여성정신대동원에 관한 건’이라는 군의 명령에 기초한 것이다. 간혹 증언록을 보면, ‘군 위안부’ 중에 민간인 포주가 여성들을 동원하여 군부대 주변에 위안소를 설치하여 관리한 사례도 있으나 이들 역시 군의 비호·통제를 받았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로 부르기로 한다.

18) 『백의의 천사들, 조선본부서 모집』, 『매일신보』, 1942.01.15. 『가정과 문화, 장부 못지않게 백의천사 되어 제일선에, 이락신씨 답』, 『매일신보』, 1943.11.23.

19) 종군간호부는 일본적집자종군간호부로 정식 군속에 편입된 구호간호부와 육군간호부로 구별되었고, 임시간호부도 존재하여 이들 간의 차별이 있었다. 조선의 종군간호부 동원실태에 대해서는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여자군속의 종군위안부와 비교 연구』와 이꽃메의 『한국근대간호사』(한울, 2002) 참조.

소 종업부 등 모집에 관한 건』에 따르면, 위안부 모집은 “파견군이 통제하고 이에 임하는 인물 선정을 주도 적절하게 하여, 실시할 때는 관계지방의 헌병 및 경찰당국의 연계를 밀접하게 하”라고 지시²⁰⁾하고 있다. 즉 일본군과 경찰의 개입에 의해 ‘위안부’는 강제 동원된 것이다. 구체적인 동원 방식을 살펴보면, ‘위안부’ 동원방식은 취업사기를 빙자한 유괴유인, 이를 통한 인신매매, 그리고 이장이나 면직원의 강압적인 권유였다. 이와 관련된 문체적인 사건 중 1939년에 발생한 ‘하운명 유괴단 사건’을 보면, 하운명이 유괴한 150여 명의 조선여성 가운데는 ‘중국 산둥 소재의 위안소’로 보내졌다.²¹⁾ 특기할 사항으로는 전쟁이 끝난 뒤, 군 간호부와 군 위안부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점이다. 몇몇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의 존재를 숨기고, 조선으로의 귀환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유로 ‘위안부’를 ‘간호부’로 그 소속을 바꾸어 놓기도 했다.²²⁾

군인들의 전투의욕 증진을 위해 군대 위안소가 설립되었다면, ‘노동자들의 노동의욕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으로 기업 위안소가 설립되었다. 일본은 탄광에 연행되어온 노동자들의 성문제를 해결하고 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선요리옥을 활용한다. 즉 1920~30년대 일본 내 조선인 집주(集住)지역을 중심으로 ‘요리옥(料理屋)’ 간판을 내걸고 밀매음이 행해지

20) 陸軍省副官通牒, 『軍慰安所從業婦募集ニ關スル件』, 吉見義明編, 『從軍慰安婦資料集』 六月書店, 1992年, 105-106쪽. ; 박정애, 「해제: 『‘위안부’ 동원배경의 이해를 위한 신문기자 자료집: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을 발간하며...」, 『‘위안부’ 동원배경의 이해를 위한 신문기사 자료집,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매일신보』(1937.1~1945.8)를 중심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2쪽에서 재인용. (이하 『‘위안부’ 동원배경의 이해를 위한 신문기사 자료집』)

21) 박정애, 위의 글, 2쪽.

22) “당시 귀환하지 못한 잔류자들은 1946년 11월경 인도네시아 치카잔에 이동되어, 농장 창고에 병원을 개설하였다. 이때도 일반 군속의 여자들을 간호부로 근무시켰다. ... 대체로 이들은 특수간호부로 호명되었고, 임간(9병원), 용인(10병원) 등으로 루스명부에 기록되었다. 그 안에 ‘위안부’도 들어가 있었다 하겠다. (중략) 문제는 처음부터 용인(군속) 간호부로 중군한 여성과 ‘위안부’ 중에서 속성, 임시, 特志간호부 등으로 변신한 여성이 명부상으로 전혀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신영숙, 앞의 글, 348쪽, 352쪽.

는 사창의 역할을 하게 했던 것이다.²³⁾ 이러한 조선요리옥이 1938년 이후 ‘전시 하 폐전업정책’에 따라 기업 위안소로 흡수되어 정부의 통제 하에 운영되는 공창의 범주에 포함되는데, 기업 위안소 설립은 노무자 강제연행과 그 시기가 일치한다.²⁴⁾ 기업위안소의 전사(前史)라고 할 수 있는 조선요리점의 여성 동원은 일본인 노동중개인이 일자리를 주선해주겠다고 속여서 일본으로 데려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²⁵⁾ 이와 관련하여 일본에 존재하는, ‘가라유키상’²⁶⁾이라고 불리는 여성과 그 문화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가라유키상’은 ‘해외 유곽으로 돈벌이에 나서는 여자’라는 뜻으로 바다 건너로 팔려간 여자들을 칭하며, “팔려간 여자들이 유곽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가난한 시골처녀들’이었고, ‘직업소개소’에 속거나 부모의 뜻에 따라 팔려갔다는 점 때문에 전쟁터의 위안부도 이 이름으로

23) 요리옥이 밀매음이 행해지는 사창의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1938년 초 삿포로(札幌) 경찰서는, 삿포로 시내에 조선인 작부가 일하고 있는 50여 개의 조선바(요리옥)는 이름만 바일 뿐 성매매를 업으로 하는 곳이라고 지적했다.”(『北海タイムス』, 1938.3.7.);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343쪽에서 재인용.

24) 1939년 7월 4일 조선으로부터 노무자 강제연행 결정, 1942년 관 알선, 1944년 징용으로 노무자 강제연행이 진행되었으며, 기업위안소가 본격적으로 세워지기 시작한 1938년 이전에 존재했던 조선요리옥(일종의 사창)은 ‘국민정신총동원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가 화류병(花柳病) 대책에 따라 공창의 범주에 포함된다. 일본 내에서 ‘조선요리옥’으로 불리는 기업위안소에 대해서는 정진성의 위의 책(2005) 참조.

25) 『工場에 넣어 준다고 數十名 婦女 유괴(誘拐), 내지로 데리고 가서 팔아먹어, 惡德女 釜山署에 피착(被捉)』, 『매일신보』, 1938.07.16.

『오오! 가여운 소녀들, 毒牙犠牲 百五十名, 誘拐魔 河允明 夫婦 罪狀 擴大』, 『매일신보』, 1939.03.07.

조선요리점의 여성 동원에 대해서는 삿포로의 조선요리점 여성들에 대해 현지조사한 윤정옥의 『정신대 원혼서린 발자취 취재기』(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회편, 『정신대문제자료집 1』, 1992) 참조.

덧붙여, 1940년대 이후 ‘집’을 떠난 여성들의 수는 늘어나지만, 인신매매 관련 기사는 급속하게 감소하는데 전시 체제기 언론통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26)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의 『가라유키상(からゆきさん)』(1976)은 『쇠사슬의 바다』(채경희 옮김, 박이정, 2002)로 번역되었다.

불리기도 했다.²⁷⁾ 이러한 견해에 따라 박유하는 전장의 위안부 역시 “가부장제와 국가의 ‘가난한 여성’-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만들어낸 존재”로 분석했다.²⁸⁾ 그런데 과거 일본에서 부모의 뜻에 따라 딸을 해외로 보내는 ‘가라유키상’ 문화와 조선의 여성들이 ‘일’을 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서게 되는 문화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특히 일본으로 끌려가 강제로 매춘을 강요당한 조선인 여성들의 집단 자살이 점점 늘자, 1943년 일본정부는 이를 기사화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기까지 했다는 기록만 보더라도,²⁹⁾ 조선의 여성들이 돈벌이를 위해 집을 나선다는 것은 일본의 ‘가라유키상’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상으로 살펴보았듯이 전쟁이 총력전의 형태로 바뀐 이후로 여성들은 군수공장, 전장의 병원 또는 위안소로 동원되거나, 조선·만주·일본 각지의 유곽 및 조선요리점으로 동원되었다. 또한 총력전 체제 하 인구 관리의 방식 중 하나로, 결혼알선을 통해 ‘대륙신부’라는 명목으로 집단 모집되어 만주에 보내진 여성들도 있었다.³⁰⁾ 이들 여성들은 대부분 가난했으며, 학력수준도 낮았다. 그리고 총력전 시기에 이처럼 ‘몸’을 쓰며 노동을 했던 여성들은 해방 직후, ‘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정조 관념’ 때문에 거리에 나와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27) 모리사키 가즈에, 위의 책, 23~24쪽.

28) 박유하, 앞의 책, 28~30쪽.

29) 윤정옥, 『정신대 원혼서린 발자취 취재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신대 문제자료집 1』, 1992, 21~22쪽.

30) ‘대륙신부’는 개척민 독신남성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척민 남성들의 출신도별로 신부후보들을 모집하여 만주로 보낸 것이다. 만주의 개척단에서 조선총독부에 신부 알선을 요청하고, 총독부에서는 지방행정기관의 도움을 구해 신부감을 모집하는 방식이었다. 이때 지역별·학교별 할당인원의 강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창기나 첩으로 팔려가는 것보다 대륙신부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랑신부 후보들은 호적등본, 사진, 건강증명서를 중매 기관에 제출해야 했으며, 신부후보자들은 “개척전사의 안해로서 가져야 할 여러 가지 정신적 훈련은 물론이고 근로보국 대륙 생활과 위생 보건 육아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서호철, 『국제결혼증개장치의 형성』, 『사회와역사』 91호, 2011.09 참조.

3. 착취 주체의 문제

여성의 성착취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적인 존재인 ‘위안부’는 크게 군위안부와 기업위안부로 나눌 수 있다. 그들의 동원 방식이나 소속의 측면에서는 차이점이 있으나, 그 역할이 대상 남성들의 ‘전투·노동 의욕 고취’라는 목적 하에 집단적으로 동원되어 성노예적 생활을 했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군 위안부의 경우, 위안부의 동원에 있어서 강제연행에 군인, 즉 국가의 개입이 있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중요하다.³¹⁾ 군 위안소의 경우, “형식상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군이 관리·통제하는 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역시 군 위안소로 규정되어,³²⁾ 군의 관리·통제 하에 조직적으로 위안소가 운영되었다. 그리고 위안부들이 위안소에 종사할 때에 “당국으로부터 취업과 폐업의 허가”를 받았는데 결혼해서 나간 위안부도 위안부로 재취업하도록 명령하는 등 위안부의 폐업이 어려웠던 사례와³³⁾ 여러 위안부의 증언에 나타나는 폭력적인 사례들을 보면 이들이 성노예적 상태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 존재하는 조선인용 유곽 및 기업위안소의 사용자는 조선인 노동자들였다.³⁴⁾ 1939년 10월 홋카이도 경찰부가 만든 ‘요리·음식

31)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40~42쪽.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는 경기도 파주시의 사설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 박씨의 일기를 안병직이 번역하여 수록한 책으로, 박씨가 버마와 싱가포르에서 일본군 위안소의 초우바(帳場)로 근무하던 1943년과 1944년, 2년치의 일기이다.

32) 위안소의 경영 형태로 보면, 세 가지 타입이 있었다. 첫째는 군직영의 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 둘째는 형식상 민간업자가 경영하나 군이 관리·통제하는 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 셋째는 군이 지정한 위안소로, 일반인도 이용하나, 군이 특별한 편의를 요구하는 위안소이다. 吉見義明著, 『從軍慰安婦』, 岩波書店, 1996, 74쪽. :안병직, 위의 책, 32쪽에서 재인용.

33) “폐업이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위안소가 군편제의 말단조직으로 편입되어 군부대와 같이 이동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들은 항상 취업부(醜業婦)로 천시되었다. 군위안부들이 놓인 위와 같은 처지를 ‘성적 노예상태’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안병직, 위의 책, 42쪽.

34) 일본 조사 사료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부는 노동자 651명당 16명(1943년 미즈이

점 취체요강'의 의하면, “신규영업은 전쟁에 참가했던 육해군인 및 군속으로서, 소집해제 또는 부상으로 귀향하여 다른 적당한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만 허가한다고 명기하고 있다”³⁵⁾ 그러나 실제 조선요리옥의 영업자는 대부분 조선인이었다. 또한 1945년 홋카이도 노동과학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홋카이도 전 지역의 탄광노동자 37.5%가 조선인이었는데, 당국은 이들의 도주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고, 성병 방지를 위해 위안소의 위생검진이 철저히 진행되었다고 한다.³⁶⁾

일본 내의 조선인 전용 기업 위안소는 대부분 종전 후에도 영업을 계속했다. 일본의 종전 선언 이후, 징용노동자들이 일본 내에서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켜 폭력적인 사건이 발발하자, “후쿠오카 광산지역의 마쓰이 타가와 탄광의 경우, 위안소가 모여 있던 사카에마치(榮町) 지역으로부터 여자들을 끌어다가 풍천각(豊泉閣)이라고 하는 곳에 모아 놓고, 징용노동자들을 데려와 성적 만족을 갖게 함으로써 폭동을 막았다는 것이다.”³⁷⁾ 이 사례는 상당히 문제적인데, 첫째 이는 일본 정부가 ‘성적 노예 상태’의 조선인 여성들을 종전 이후에도 관리·통제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둘째, 조선인 남성들조차 이들 여성들에 대해 해방을 맞은 같은 민족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기업위안부’로 분류되는 공창은 일본 내지 뿐만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존재했다. ‘일본인 전용’과 ‘한국인 전용’이 따로 있었으며, 한반도 내의 공창 영업자 510명 중 한국인이 207명에 달한다.³⁸⁾ 심지어 1943년, 도

스나가와 탄광), 947명당 7명(미즈비시비바이 탄광), 300명당 6명(북해도 E. 광업소) 등의 비율로 배치되었다.”(362쪽); 정진성, 앞의 책(2005) 참조.

35) 北海道警察史編輯委員會, 1968; 정진성, 위의 책, 305쪽에서 재인용.

36) 정진성, 위의 책, 353쪽.

37) 정진성, 위의 책, 370쪽.

38)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호, 2002, 71쪽.

당시의 매춘문제 권위자였고 폐창운동의 선봉에 섰던 이토오히데요시(伊藤秀吉)에 의하면 1929~30년 당시 한반도 내에는 모두 25개의 유곽이 있었고 공창 영업자가 510명(일본인 303, 한국인 207) 창기수가 3,170명(일본인 1,798 한국인 1,372)이라고 집계하고 있다.

시 서비스 분야의 업자들은 “획기적인 국내태세 강화에 발을 맞추어” “산업전사를 위시한 근로자의 위안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절대로 필요하리라는 수효만을 남기고” 나머지 여성들을 ‘총력전사’로 전환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획기적인 국내태세 강화에 발을 맞추어 총후국민은 더욱 강력한 결정생활 체제를 수립하여 성전을 완수하기에 전부를 바쳐야 할 때를 당하여 유흥가의 카페, 卍 등 업자도 이때 단연 지속하여 전력증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방면으로 분발을 약속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중략...) 자진하여 현재의 수를 줄여가지고 산업전사를 위시한 근로자의 위안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정도의 절대로 필요하리라는 수효만을 남기고 그 경영방침도 국책과 시국에 어긋나지 않을 건전한 방식으로 하여 재출발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번 폐업하게 되는 영업소는 산업방면의 사무소로 쓰게 하고 또 여급들은 여자근로동원에 발을 맞추는 전력증간의 총력전사로 나서게 하도록 힘쓸 방침이라는 것이다.”³⁹⁾

위의 인용문은, ‘근로자의 위안에 이바지’하는 기업위안소가 존재했고, 이는 국책과 시국에 어긋나지 않은 공창이며, ‘여자근로 동원’ 정책에 맞춰 업자들은 수하의 여급들을 국가에 ‘총력전사’로 내어놓겠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종전 이후 일본인 유곽업자들과 일본인 매춘여성들이 일본으로 돌아가자, “일본인들이 버리고 간 일본유곽들은 한국인 유곽업자들이 접수”⁴⁰⁾한다. 이는 조선인 여성은 국가의 통제·관리 하에서 일본인뿐만 아니라 조선인 남성에 의해 성노예적 생활을 했으며, 조선의 해방 이후에도 조선인 매춘여성에 대한 억압은 조선인 남성에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보여준다.

총력전기 조선인 여성의 전쟁 동원, 특히 ‘군/기업 위안부’로의 동원은

39) 『百餘 곳을 卍五處로, 鐘路 카페, 卍 整理統合을 自進 單行』, 『매일신보』 1943.09.26.

40) 손정목, 앞의 글, 72쪽.

학교(교사, 교장)와 지역 관공서(구장, 면직원, 군청 등 지방행정단위, 직업소개소, 경찰) 그리고, 유괴·납치, 인신매매, 취업사기 및 협박 등의 방식으로 행해졌으며, 이는 위안부의 증언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1946년 10월 발표된 작품 중 이러한 여성 동원 현장을 묘사한 장면에서 의외의 인물이 등장하여 주목을 요한다.

김송의 『안개 속의 마을』⁴¹⁾은 1946년 5월 27일 군정포고(軍政布告七十號)로 인신매매 금지법이 포고되던 날, 15살에 유곽에 팔려 7년간 “못사나이들의 색색이 노리게감으로- 향락의 악기로- 가진 형태의 향락을 논아준”⁴²⁾ 복희가 포주에게 해방되어 고향으로 가는 열차 안에서 여성 해방 운동을 하는 정숙이를 만나 “희망을 품고 부끄럽히 일하구 배워” 재생하겠다는 희망을 품게 된다는 내용의 단편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문제적인 부분은 아래의 인용문이다.

어느 날 아버지는 술에 몹시 취해가지고 웬 사나히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다.

“예 복히야. 너 이 사람 따라가거라. 서울서 오신 아저씨다. 너를 서울에 다려다가 대가집에 두고 공부도 식히구 잔심부름도 식히겠다구 하시는데 이런 팔자 느러진 횡수가 다시 없을게다. 이 아저씨의 말을 잘들어야해”

아버지는 해까부러진 소리로 복희를 선무하고 서울서 온 사나이더러 선을 잘 보라고 넌짓이 눈짓을 했다.

서울서 온 사나이는 복희의 얼굴과 몸매를 유심히 뜯어보고 장터에서 쇠 흥정하듯 아버지를 보고 손가락을 쳐들고 한 장이면 어떠냐고 동의를 구하고 문서를 내어놓고 도장을 받았다.”⁴³⁾

복희의 인신매매 현장에 ‘아버지’가 등장하여 직접 매매를 하고 있다는

41) 김송, 『안개 속의 마을』, 『백민』 1946.10월호.

42) 김송, 위의 글, 89쪽.

43) 김송, 위의 글, 92쪽.

점이다. 이렇게 팔려간 복히는 7년간 경성의 유곽에서 매춘을 하게 된다. 복히의 아버지는 “한말당시에 병거지를 쓴 포졸노릇을 하다가 한일합병과 동시에 조선군대가 해산되면서 파직당하고” 활쏘기와 술을 마시며 한말 당시 한량들과 어울려 지내다가 돈을 모두 팔아넘기고 집, 개까지 모두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잡혀 딸을 매매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일합병이 아버지를 낙오자로 만들고 한겨름나아가 가문을 형지없이 망쳐버린 것으로 일본에 의한 조선 민족의 수난과 가문의 몰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국 유곽에 딸을 판 주체는 “돈이라면 오금을 못 쓰는 아버지”⁴⁴⁾인 것이다.

정리하면,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조선인 ‘군/기업 위안부’ 문제는 민족의 문제로 치환되면서 (조선인) 남성에 의한 수난의 기억이 삭제되어 왔다. 그러나 이 문제는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와 일본인에게 ‘빼앗긴 성’으로 치부할 수 없다. ‘군/기업 위안부’의 수난사를 식민지 시기의 민족 수난사 중 하나의 사례로 읽어내는 것에서 나아가, 이들 여성이 성노예적 생활을 하게 된 배경과 그녀들을 그런 취급한 대상은 누구인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민족 수난사로 읽을 때 누락되거나 혹은 은폐되었던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일본에 의한 조선 ‘민족’의 수난으로 정형화된 담론의 재생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性)’의 문제에 주목하여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졌던 장면들에 숨겨진 의미를 찾아야 한다.

4. 해방기, 불온한 여성

1946년 1월 『여학원』⁴⁵⁾에 「건국 여성의 각오」라는 글이 수록되는데,

44) 김승, 위의 글, 92쪽.

45) 1946년 1월 『여학원』은 여성들의 “지식(智識)과 천성(天性)인 예민(銳敏)한 동찰력(同察力)과 온정(溫情)을 함축(涵蓄)하고저” 여학원(女學園)이 창간된다. 「創刊

이 글에서 안호상은 ‘건국(建國)의 큰 사업(社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계급이 화합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녀 다 같이 분투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남성의 무자비한 이기심과 야욕으로 인해 전쟁이 일어났으며, 지금과 같은 건국의 시기야말로 여성의 힘, 그 중에서도 ‘모성애’가 필요한 때라고 말한다.⁴⁶⁾ 정래동 역시 “여성의 본래 임무를 망각하고 부질없이 정치방면에만 치중한 것은 불찬성”이라며, “생산을 하고 어떤 애를 보육”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한다.⁴⁷⁾ 이들이 말하는 건국의 여성은 ‘가정’ 안에 머물러 있다.

반면 1946년 6월 『신천지』 여성문제 특집에 수록된 글들은 여성들의 사회 활동, 즉 경제활동에 나서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가령 엘라·윈티는, 소련 여성은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에서 남자와 같은 조건으로 취직할 수 있으며, 전쟁이 끝난 뒤 남자들이 직장에 돌아와도 해고당할 염려가 없는데 조선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⁴⁸⁾ 특히 해방직후 미군 정보참모부 소속 민간통신검열단의 대위로 조선에 들어온 애리스·현은 『美國의 女性』에서 여성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 남성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독립할 수 있다는 신념을 얻게 되었다고 말한다.⁴⁹⁾ 그러면서 직장에서 일을 하던 여성뿐만 아니라 가정부인들도 직업전선에 다시 진출했다며, 조선의 여성들도 직업전선에 나서야 ‘진실한 여성 해방’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최화성 역시, 여성이 ‘노동을 하지 않아 경제적 기반을 잃었기 때문에’ 남성의 의사에 좌우되는 여성이 되었다며 다른 필자들과 마찬가지로 여성의 직장 노동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여성의 완전한 해방을 위해, 무산자계급이 협력하여 사회혁명을 일으켜, ‘사유제도(私有制度)’를 극복하고 ‘사회주의사회’를 만들자고 주장한다.⁵⁰⁾

辭, 『女學園』學生界社, 창간호, 1946.1.

46) 안호상(경성대학교원), 『建國女性の 覺悟』, 『女學園』學生界社, 창간호, 1946.1.

47) 정래동(동아일보사 학예부장), 『中國의 女學生』, 『女學園』學生界社, 창간호, 1946.1.

48) 엘라·윈티, 『蘇聯의 新女性』, 『신천지』, 1946.6.

49) 애리스·현, 『美國의 女性』, 『신천지』, 1946.6.

50) 최화성, 『蘇聯婦女の 現狀』, 『신천지』, 1946.6.

이처럼 해방기 여성의 역할을 가정 ‘안’에서의 노동으로 풀어나가려는 입장과 가정 ‘밖’에서의 노동으로 풀어나가려는 입장으로 양분되었다. 이러한 양분화는 좌우익 여성단체들에게서도 나타났으며, 공창제 폐지 및 매춘 여성의 생활 대책 및 교화 문제에 있어서도 입장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폐업공창구제연맹’을 결성한다.(1946.08.10) 그러나 ‘좌익단체’에 대한 미군정의 정치적 탄압이 심해지고, 미군정 보건후생부 산하 부녀국이 설치(1946.09.14) 되어 고향경이 초대국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창제 폐지 문제는 좌익여성단체가 배제된 채 부녀국과 우익여성단체를 중심으로 논의 되었다. 이후 이들은 ‘인신매매금지령’이 아닌 공창제를 폐지하는 법률의 제정⁵¹⁾과 여성의 구제 대책으로 ‘희망원’ 같은 기구의 설치를 요구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를 시작으로 1948년 공창제가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공창제의 문제는 ‘국민 보건과 가족 건강’⁵²⁾라는 측면에서 논의 되었다는 점이다. 즉 매춘여성들의 의식 부족과 ‘성병 만연’ 그리고 ‘가정 보호’를 위해 공창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확립된 것이다.⁵³⁾

51) 공창제 폐지법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1947년 3월 25일 ‘폐업공창구제연맹’이 공창제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서를 남조선과도입법위원회에 제출하고, 1947년 8월 8일 ‘공창제도폐지령’안이 입법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1947년 10월 28일 군정장관 대리 헬믹대장의 인준을 얻어 법령으로 확정한다. 1947년 11월 14일 입법위원회가 제정하고 군정장관이 인준하는 형식을 취한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7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이 공포된다. 그러나 이 법령은 “밑매춘 업자에 의한 매춘여성의 매춘행위의 허용을 전제하고, 벌금부과라는 처벌로 매춘을 폐지하겠다는 비현실적인 법”이라는 문제점이 있어서, 1948년 1월 26일 입법의원 내에서 공창제 폐지법에 대한 재심의안이 제출된다. 1948년 2월 12일 ‘법률 제7호의 개정’인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9호로 개정, 공포되고, 마침내 1948년 3월 19일 입법위원회는 공창제 폐지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 제16호 ‘공창제도 등 폐지령’을 공포하며 공창이 폐지됨. 양동숙, 앞의 글, 222~228쪽.

52) 이나영, 『성매매 ‘근절주의’ 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1호, 2009, 18~25쪽 참조.
53) 공창제 폐지 운동과 민족의 보건 문제에 관해서는 줄고 『해방기 공창제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19집, 2008.) 참조.

가령, 1948년 1월 15일 ‘공창구제연맹’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⁵⁴⁾ 여성 매춘업의 원인을 ‘무식’과 ‘가난’에서 찾고 있으며, 민족의 보건을 위하여 전염기에 있는 성병환자는 ‘수용 또는 격리’하여 치료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다. 즉 ‘공창폐지연맹’이 제안하는 국가 정책은 성병환자에 대해 ‘국가 보건상 만전의 치료’를 한다는 보건의 문제로 한정되어 있다. ‘공창제도’를 둘러싸고 가장 문제가 되는 사항은 민족의 보건의 문제인 셈이다.

‘공창제 폐지’ 문제에 대한 여성 운동 단체의 집중력과 이를 ‘민족의 보건’ 문제로 풀어내는 방식들에서 이들 여성운동단체와 통치계급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는 식민지 시기 ‘문란하고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제를 위해 총독부가 어떠한 담론을 생산했는지 떠올려보면 의외로 쉽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1940년대 초반, 총력전 시기에는 애국을 위한 희생정신이 강조되며 포대재료의 재생, 세탁, 소독, 재활용 등 물자 절약과 검약 실천하는 여성상이 제시되었고, 남편과 자식을 병사로 만든 여성들이 미담으로 소개되었다. 절약하고 노동하며 희생하는 여성이 모범적인 여성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1941년 11월, 『춘추』의 <국민개로운동(國民皆勞運動)의 실천요항(實踐要項)>이라는 특집에는, ‘놀고 먹는 부유 계층 자식들’에게 전장을 시찰시키면, 전장 제일선에서 싸우는 병사들을 보고 양심이 움직일 것이라거나,⁵⁵⁾ “휴유인원(休遊人員)이 내 생각 같아서는 도시(都市)의 유한계급(有閑階級) 부인층(婦人層)에 많다”며 유모와 침모를 내보내 자기 손으로 밥 짓고 옷을 지어 입게 만들자는 등⁵⁶⁾ 국민개로운동의 구체적인 방법들이 소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모범적인 총후부인의 모습을 그려낸 최정희의 소설, 『2

54) 김용년, 「공창이 없어지든 날까지」, 『새살림』 제2권 제2호, 1948.4, 20~25쪽.

55) 서원종린(瑞原鐘麟), 「놀고 먹는 사람에게 전장(戰場)을 구경(求京)시켰으면」, 『春秋』, 1941.11.

56) 권상로, 「놀고먹는 습관은 강제로라도 고쳐야해」, 『春秋』, 1941.11.

월 15일의 밤』⁵⁷⁾과 『장미(薔薇)의 집』⁵⁸⁾은 총동원 체제 이후 총후부인의 생활 태도에 대하여 ‘애국반장’ 활동과 함께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다. 두 작품 모두 ‘애국반장’ 활동을 하겠다는 아내와 “떠들썩하구 야단법석인 여잔” 싫으니 집 안에서 조신하게 있으라는 남편의 언쟁이 중심 서사인데, 이 중 『장미의 집』에는 남식이라는 친구가 찾아와 자신의 아내를 교화시켜 달라는 내용을 통해 이상적인 총후부인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일신(一身)의 편안을 거부하고 근검절약과 근로 등의 극기(克己)의 생활을 묵묵히 실천하는 성례와 달리, 남식의 아내는 ‘유한계급의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며 사치를 부린다. 이들 유한부인의 일상은 아래 인용과 같다.

아침 느게 이러나선 식모가 해준 밥을 먹군 미용원이다, 백화점이다, 영화관이지. 백화점에 다니며 옷감을 어떻게 떴는지 죽을 때까지 입어두 반두 못 입을거야, 거들줄두 모르면서 집이 작다니 마당이 좁다니, 트집이지, 하인은 두셋씩이라두 모자란다지, 그러구두 신문이나 책을 보람 시간이 없다지, 라디오두 시간 없어서 못 듣는데, 영화관 갈 시간은 있어두⁵⁹⁾

총동원 체제 하에서는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혀 국책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며 부인과 아내로서의 정체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⁶⁰⁾ 남수의 아내와 같은 유한부인들은 술과 유희, 사치와 소비만을 하며, 총력전 체제와 이념에 순응하지 않는다. 통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통치

57) 최정희, 『2월 15일의 밤』, 『녹기』 1942.4.; 김재용, 김미란 편역, 『식민주의와 협력-일제말 전시기 일본어 소설선 1』, 역락, 2003.

58) 최정희, 『장미(薔薇)의 집』, 『대동아』 1942년 7월호.

59) 최정희, 『장미(薔薇)의 집』, 『대동아』 1942년 7월호.

60) 총동원기 젠더적·계급적·지역적으로 차별화된 여성의 정체성 그룹 간의 헤게모니 투쟁에 관해서는 권명아, 『식민지 경험과 여성의 정체성』, 『한국근대문학연구』 6권 1호, 2005 참조.

체제와 이념에 순응하지 않은 채 술과 유희, 사치와 소비라는 문란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주체로, 단속과 통제의 대상, 그야말로 ‘불온한’ 존재였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유희와 남녀의 성문제 등과 같은 개인적이고 일탈적인 행위는 도덕 윤리까지 포괄하는 ‘풍기문란’이라는 이름으로 법적 통제를 받았다.⁶¹⁾ 이들 모두 전쟁 수행을 위해 군사뿐만 아니라 후방의 전국민이 모든 능력을 전시 체제로 운용해야 할 국가 ‘총력전’ 시기에 한 사회의 통치체제를 위협하고 교란하는 행위, 감정, 주체에 해당하는 불온한 존재인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 조선에는 전제민 신분으로 고향에 돌아온 여성에 대한 처우 문제는 미군을 상대로 하는 ‘양공주’ 문제와 함께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다. 이는 모두 ‘민족의 보건’이라는 용어로 통제·관리되었으며, 그 이면에는 보호해야 할 존재로서의 부녀자가 설정되어 있었다. 보건·위생 관념을 통해 매춘여성들은 ‘성병 감염원’으로 간주되어 성병환자와 동일시되었고, 이들은 치료와 보호라는 이름으로 ‘희망원’과 같은 기관에 수용되어 사회와 격리된다. 즉 이들은 “건강한 미래 세대” 재생산의 걸림돌이자 국가 건설의 장애물이었으며, 따라서 “가정주부”로 “갱생”되어야 할 존재”였던 것이다.⁶²⁾ 흥미롭게도 공창제 폐지 운동이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수록 여성의 ‘정조관념’에 대한 관심이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⁶³⁾

온갖 사건이 신무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이 때에 “정조편(貞操篇)은 날로 충천의 기세를 올리고” “음탕(淫蕩)한 중세기적(中世紀的) 암흑면은 마력(魔力)을 확장하여 순진한 부녀자와 처녀 여학생까지 유희의 손을 뻗히고” 있어서 “도대체 수도(首都)서울을 확보하는 여인 중에 처녀(處女)가 몇몇이며 단정(端正)한 부녀자가 몇몇인지”⁶⁴⁾ 알 수 없게 되었다

61) 한국 사회에서 ‘풍기문란’과 ‘정조’라는 수사의 변주에 대해서는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참조.

62) 이나영, 앞의 글, 24쪽.

63) 공창폐지운동이 확산되면서 심화된 ‘정조관념’에의 집착은 오히려 창기 출신의 여성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결과로 이어졌다.

64) 오소백, 『거리의 情報室 : 난도(亂都) 서울의 지하(地下) 정조(貞操) 경매장(競賣

는 것이다. 그리고 정조 관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특히 사치와 허영이 심해 ‘귀족여자대학’으로 불리던 한 여자대학교의 성악가 A씨와 소프라노 K학생이 사제간의 애욕의 끝에 잔인한 낙태를 하고, 이 사실이 병원의 간호부와 뒷바라지를 해준 꼽추의 입을 통해 밝혀지자 두 사람이 자취를 감춰버렸다는 사건이 소개된 이후 더 확산되었다. 그래서 “처녀나 처녀가 아니냐, 이것을 증명키 위한 역사적 처녀성의 검진(檢診)이 10월 초 시내 XXX병원에서 시행” 되기도 했다.⁶⁵⁾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면, 정조를 내팽개쳤다면 여성들이 지탄을 받는다.

오늘날 처녀들의 8할은 처녀성이 없는 처녀 아닌 처녀니 결혼하려면 먼저 처녀성을 검진하여야만 된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하여금 느끼게 만든 XX 여자대학은 맛당히 미·사의 종소리를 드러가며 참회하는 가운데 모든 퇴폐적인 정신과 풍기를 털어내고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⁶⁶⁾

“사랑과 정조를 해방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을 빌어 함부로 거리에 팽겨치는 이 땅의 여성들이” “퇴폐적인 정신과 풍기를 털어내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은 ‘순진한 부녀자와 처녀 여학생’에게까지 음탕한 마력이 확장된 것으로, 이 여학생을 “양키바람에 광무(狂舞)하는 귀족적여대생(貴族的女大生)”⁶⁷⁾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양키바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군을 상대로 하는 여성들이 대부분 “공창가(公娼街)에 있던 부류들과 이복서 온 부류”라는 점도 글에서 함께 거론하고 있다. 즉, 과거에 유곽에서 매춘을 한 여성들은 (현재의)‘성병 감염원’이거나 ‘단정한 부녀자와 처녀 여학생’을 오염시켜 (미래의)가정의 건강과 위생을 위협하는, 다른 말로 안정적인 가정의 존속을 방해하는 불온한 존재가 된

場)』, 『신천지』, 1948.10.

65) 고원섭, 『開放된 사랑의 禁獵區』, 『신천지』, 1948.10.

66) 고원섭, 『開放된 사랑의 禁獵區』, 『신천지』, 1948.10.

67) 오소백, 『거리의 情報室 : 난도(亂都) 서울의 지하(地下) 정조(貞操) 경매장(競賣場)』, 『신천지』, 1948.10.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담론에서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이러한 논리에는 ‘순진한 부녀자와 처녀 여학생’을 거리로 유혹한 남성의 존재가 지워져 있다는 점이다.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해 여성에 대한 성적 금기와 불온의 정치성은 종종 활용된다. 해방기 여성의 문제는 국민 보건의 문제와 연결되며, 보건·위생의 문제는 곧 가정의 존속이라는 문제에 닿아 있다. 온전한 가정(家庭)을 가정(假定)해놓고, 이를 위협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할 것처럼 보이는 대상들을 배제한다는 논리 안에서, 해방기 여성들은 ‘공창제 폐지’ 운동에 집중하고, 공창제 폐지법을 제정해 낸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보호할 대상으로, 과거 ‘군/기업 위안부’ 형태로 성착취를 당했던 여성을 불러냈지만 ‘보호·갱생’의 이름으로 이들을 격리시키려 한다. 국가는 문란하고 부적절하고 음란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가하며, 이러한 통제를 통해 국가의 통치가 가능해진다.

5. 결론 : 불온한 ‘비국민’과 남겨진 문제

여성들의 노동에 주목한 이 연구는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통치 수단으로서 여성을 억압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주되는 불온의 정치성을 고찰하고자 함이다.

국가는 지배 체제 유지를 위해 ‘정상’과 불온한 ‘비정상’을 구별 지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 금기와 불온성을 활용한다. 이때 국가는 혼란과 무질서로부터 ‘정상’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모호한 ‘정상’의 개념을 명확하게 경계 지어 드러내기 위해 불온한 존재(비정상)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 불온한 존재를 경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비로소 안정된 상태의 체제가 유지되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에서 불온, 풍기문란 등의 개념의 형성과 재생산은 일본의 식민 통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풍기문란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풍속 통제라는 일본의 법적 장치와 결부”되어 있으

며, “일본에서 풍속 통제가 일상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사법적 조치에서 성 산업으로 범위가 축소된 것은 이른바 미군정(GHQ)에서 실시한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서였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미군정 지배와 한국전쟁, 분단 체제로 이어지는 과정을 거치면서 풍속 통제를 바탕으로 하는 일상에 대한 국가 관리가 더욱 강화되었다.”⁶⁸⁾ 식민지 말기 총동원 체제 하에서 절약과 근로가 강조되면서 총후 부인으로서의 ‘국민’과 ‘사치와 허영’에 사로잡힌 불온한 존재로서의 ‘비국민’이 구별 지어졌다. 소비와 사치 그리고 술과 유흥에 젖은 유한부인과 유곽의 창기·여급들이 풍기를 문란 시키는 불온한 존재, 즉 ‘비국민’으로 구별 지어지며 ‘국민’의 경계 밖으로 내쫓긴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해방 이후 여성의 지위향상·권리확대·직업적 진출을 호소하면서 공창제 폐지를 핵심 사안으로 거론한 ‘공창구제연맹’은 성착취를 당하고 억압받았던 여성들을 ‘국민’의 경계 안으로 포섭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경계 짓기를 하며 ‘불온한’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즉 그 불온한 존재를 경계 밖으로 끄집어냄으로써 안정된 상태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시 체제라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안정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비국민’의 존재를 명확하게 드러냈던 총력전체제의 통치 전략이기도 하다. 해방기 ‘공창구제연맹’은 성노예적 생활을 한 피해 여성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겠다고 ‘국민’의 경계 안에 포섭하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들의 존재를 온전한 가정을 위협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음란하고 퇴폐적인 대상, ‘불온한’ 존재로 구별 지은 것이다.

해방기 민족 담론장 안에서 여성의 ‘성’을 둘러싼 문제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민족 수난의 사례로 단순화되며, 복합적으로 존재했던 폭력의 기제들, 조선인 남성의 폭력은 은폐되기도 했다. 또한 해방기의 공창제도 폐지 운동은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구호와 재생을 위한 운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성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여성들을 보건·위

68)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188쪽.

생이라는 관념 틀을 통해 ‘안전(국민)과 비위생적인 음란(비국민)’으로 양분화하여 통제·관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每日新報』, 『春秋』, 『新天地』, 『白民』, 『女學園』, 『새살림』

2. 단행본 및 논문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3과 편집, 『조선여자근로정신대, 그 경험과 기억』, 국무총리실소속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11쪽.

권명아, 『음란과 혁명: 풍기문란의 계보와 정념의 정치학』, 책세상, 2013, 1~410쪽.

김미현, 『‘조선여자근로정신대’ 방식에 의한 노무동원에 관한 조사』,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8, 3쪽.

모리사키 가즈에(森崎和江), 채경희 옮김, 『쇠사슬의 바다』(원제:からゆきさん(1976), 박이정, 2002, 23~24쪽.

박유하, 『제국의 위안부 :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 뿌리와이파리, 2013, 44쪽.

박정애, 『해제: 『위안부』 동원배경의 이해를 위한 신문기자 자료집: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을 발간하며..』, 『‘위안부’ 동원배경의 이해를 위한 신문기자 자료집, 전시체제기 조선의 사회상과 여성동원-『매일신보』(1937.1~1945.8)를 중심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2007, 2쪽.

서호철, 『국제결혼중개장치의 형성』, 『사회와역사』 91호, 2011.09. 99~131쪽.

손정목, 『공창(유곽)이 폐지된 과정』, 『도시문제』 402호, 2002. 69~76쪽.

- 신영숙,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 일본군 ‘위안부’의 정체성-여자군속의 종군위안부와 비교 연구』, 동국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논총』 25호, 2009.09. 325~370쪽.
-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32~42쪽.
- 양동숙, 『해방 후 공창제 폐지과정 연구』, 『역사연구』 제9호, 2001.06. 207~243쪽.
- 와카쿠와 미도리(若桑みどり), 손지연 옮김, 『전쟁이 만들어낸 여성상-제2차 세계대전 하의 일본 여성동원을 위한 시각 선전』, 소명출판, 2011, 1~248쪽.
- 윤정옥, 『정신대 원혼서린 발자취 취재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정신대문제자료집 1』, 1992, 1~100쪽.
- 이꽃메, 『한국근대간호사』, 한울, 2002, 1~247쪽.
- 이나영, 『성매매 ‘근절주의’ 운동의 역사적 형성과 변화의 의미 : 일제 강점기와 미군정 시기 폐창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1호, 2009. 5~34쪽.
- 이혜령, 『한국소설과 골상학적 타자들』, 소명출판, 2007.
- 장미화, 『일본의 아시아·태평양전쟁기 여성동원정책에 관한 연구』, 한양대 국제대학원 일본학과 박사논문, 2007.2.
- 정진성, 『억압된 여성의 주체 형성과 군 위안부 동원』, 『사회와 역사』 제54집, 1998. 77~94쪽.
- 정진성, 『일본군 성노예제 : 일본군위안부문제의 실상과 그 해결을 위한 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1~430쪽.
- 정혜영, 『여성노동공간의 다양화와 식민화』,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2004, 316~323쪽.
-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주권 권력과 벌거벗은 생명』, 새물결, 2008.
- 최지현, 『해방기 공창제폐지운동과 여성 연대(solidarity) 연구-김말봉의 『화려한 지옥』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9집, 2008. 267~292쪽.

Abstract

The Politics of Sedition and National Mobilization for Women in the 1940s

Choi, Ji-Hyun

In the 1940s, women who have been living while using the "body" was placed inside of the boundary of the "national" by the contemporary dominant discourse. Otherwise the women was placed outside. And They are separated by nationals or non-nationals. For example, women suffered the sexual exploitation in downtown bawdy house was called "non-nationals" but, suffered the sexual exploitation in the "military/corporate comfort women" was called "nationals". However, on August 15, 1945 Korea became free from Imperial Japan. After that, such limits for women disappeared, it is just referred to as the poor woman who had been freed from sexual slavery by the Japanese and therefor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exercise to this women has been promoted.

This paper had studied that how named to this "comfort women(sexual slavery)" and how separated by nationals or non-nationals, in the 1940s. By doing so, this paper discussed the political of "sedition" to be varied depending on the period. In addition, this paper said that "sex" problems have been cleared by the "national ordeal" in the 1940s, by focusing on a subject that suppression of women.

■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3일에 접수되어, 2014년 12월 5일에 심사 완료되고, 2014년 12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